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15호 [루게 제 24793호] 주제 104 (2015)년 1월 15일 (목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해나가자

우리 조국은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불패의 사회주의 정치사상강국이다. 지금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받들고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승리의 신심드높이 새해의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조국수호의 전초선들과 중요대선전장들, 사회주의 협동법들과 과학연구기지를 비롯하여 이 땅 그 어디에서나 당의 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천만인민의 비상한 각오와 혁명적열정이 새해에 끓어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올해에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올해에 우리는 사회주의정치사상강국의 불패의 위력을 더욱 강화해나갈것입니다.》** 정치사상적위력은 나라와 민족의 제일가는 힘이며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추진력이다. 전체 인민이 령도자를 중심으로 사상의지적으로, 현연적으로 굳게 결속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맞받아싸고나가는 나라는 패하는 법이 없다.

사상을 유일한 무기로 틀어쥐고 단결의 위력으로 승리만을 펼쳐나가는 것은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다. 사상은 우리 당의 가장 위대한 무기이며 일심단결은 혁명의 천하지배본이다. 세상에 모든 조국과 같이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에서 사상이 선전되고 천만인민의 단결된 힘으로 세기적변혁을 이룩해나가는 나라는 없다.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이것은 70년에 걸치는 장구한 백두조국건설사의 귀중한 전통이며 백두산대국의 더없는 자랑이고 긍지이다. 혁명의 년대마다 높이 펼쳐온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을 더욱 강화하여 올해 총공격전에서 자랑찬 승리를 이룩해나가는 우리 당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업적을 끝없이 빛내어나가기 위한 근본방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는 천만년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높이 모시며 수령님과 장군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여기에는 우리의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이 순결한 망사고의리, 고결한 충성을 지니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전사, 제자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갈데 대한 높은 의의가 담겨 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상과 업적은 우리 당과 혁명의 명맥이며 민족의 만년제보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영생불멸의 혁명사상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모든 토대를 다 마련해준 절세위인들의 선견지명과 불멸의 업적을 심장깊이 절감하고 있다. 우리가 대를 이어가며 누리는 높은 존엄과 영광, 주체혁명의 확고한 계승과 양양한 전도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하나로 잇닿아있다. 우리의 일심단결은 수령의 사상과 업적을 대를 이어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갈수 있게 하는 최강의 무기이다. 수령의 혁명사상의 절대적권리성과 변혁적위력을 뼈에 새긴 인민, 수령의 언덕으로 행복찬 삶을 누리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을 따라 추호의 흔들림없이 역세게 나아가며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빛내어나가는데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는것이 천만인민의 가슴마다에 간직된 철철같은 신념이다. 전체 군대와 인민이 당의 령도 따라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갈 때 이 땅위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영광은 더 높이 펼쳐지게 될것이다.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우리는 올해에 조국해방 일흔둘과 당창건 일흔둘을 맞이하게 된다. 우리 당과 조국력사에 특기할 혁명적 명절들이 겹친 뜻깊은 올해에 강성국가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모든 전선에서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는것이 우리 당의 의도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바와 같이 우리는 올해에 군사강국의 위력을 더 높이 떨치고 이념이 마비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국력건설에서 전환을 일으키고 나가야 한다. 농산과 축산, 수산, 경공업, 인민경제 수행부문과 중요공업 부문들에서 생산적양상을 일으키고 교육과 체육, 문화예술, 보건을 비롯한 사회주의문명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해야 하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의 정치사상적위력, 일심단결의 위력을 최대로 분출시키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사상의지적으로 각성되고 분발해나선 군대와 인민의 힘은 무궁무진하다. 지난해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불리한 조건에서 더 대담히, 대혁신으로 아득한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조선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할수 있는것도 천만인민의 열렬한 애국심

과 불굴의 투쟁정신이 남김없이 발양되었기때문이다. 우리는 올해에도 정치사상적위력을 총폭발시켜 강성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이 있는 토대를 더 높이 올려나갈수 있다. 우리앞에 나선 투쟁과업은 방대하지만 하나의 지향, 하나의 사상을 지니고 끝까지 결속되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는 뚝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정치사상강국의 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은 오늘의 사회주의수호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지금 미래와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비열한 '인권'과 '인권'에 매여달리는것도 성차지 않아 최근에는 우리를 그 무슨 '사이버베르'와 '역지'로 편견시키면서 반공화국제재수도에 열을 올리고있다. 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우리 당의 사상 불태우고 빛내이는 길에 한몫 다 바칠 엄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고귀한 전통과 당원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누구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필승불패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올해신년사학습에 힘을 집중하여 우리 조국을 영위하기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같이 새겨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승패와 진퇴가 전적으로 사상사업에 달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중앙과 사상과 승결도, 발결도 같이하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불패성이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당과 혁명대오의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하는 정신력량의 강자라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진지를 좁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에 대하여서도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도 각성있게 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제옹위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삼파 투쟁의 파우명으로 이른바 '불태워'고 빛내이는 길에 한몫 다 바칠 엄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고귀한 전통과 당원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누구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필승불패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올해신년사학습에 힘을 집중하여 우리 조국을 영위하기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같이 새겨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승패와 진퇴가 전적으로 사상사업에 달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청소년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특히 전체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누구나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삼파 투쟁하는 정신력량의 강자라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진지를 좁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에 대하여서도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도 각성있게 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제옹위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삼파 투쟁의 파우명으로 이른바 '불태워'고 빛내이는 길에 한몫 다 바칠 엄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고귀한 전통과 당원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누구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필승불패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올해신년사학습에 힘을 집중하여 우리 조국을 영위하기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같이 새겨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승패와 진퇴가 전적으로 사상사업에 달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당원들과 군인들, 청소년들을 선군혁명투사들로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특히 전체 인민을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교양사업에 힘을 넣어 누구나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삼파 투쟁하는 정신력량의 강자라 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 혁명진지를 좁히는 온갖 불건전한 사상요소에 대하여서도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전우가 되어야 한다. 우리 혁명대오의 정치사상적순결성을 확고히 보장하며 일심단결에 저해를 주는 사소한 현상도 각성있게 대하고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체제옹위의 불결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당의 로선과 정책관철을 당사업의 주선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당정책을 틀어쥐고 시기마다 제시되는 당정책을 어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당과 혁명의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고, 삼파 투쟁의 파우명으로 이른바 '불태워'고 빛내이는 길에 한몫 다 바칠 엄정으로 심장을 불태워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총사령관으로서의 고귀한 전통과 당원들을 자자구구 깊이 학습하여 누구나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필승불패를 심장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올해신년사학습에 힘을 집중하여 우리 조국을 영위하기 정치사상강국으로 빛내어나가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같이 새겨야 한다.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세우는 사업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갈수 있는 승패와 진퇴가 전적으로 사상사업에 달려있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우리의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자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선 평양시버섯공장에서 생산 시작

위대한 당의 령도 따라 10월의 대추전장을 향하여 천만인민이 백두의 눈보라나 양 폭풍처럼 내리걸고있는 장엄한 투쟁속에서 새해백두부리 승리의 포성이 장쾌하게 울려 퍼졌다.

얼마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쁨속에 돌아보시면서 내놓고 자랑할만한 공장, 안락으로 좁잡을데가 없는 우리 나라 버섯공장의 본보기, 표준이라고 높이 내세워주시는 평양시버섯공장에서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생산방법이 공업적이고 집약화수준이 높을뿐만 아니라 버섯기르기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이 충분히 갖추어진 현대적인 버섯공장이 일떠서 생산을 시작함으로써, 시농촌경리위원회의 일꾼들은 자체의 힘으로 버섯공장을 일떠세우기 위한 작전과 지도를 면밀히 짜고들며 일판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렸다. 시안의 일꾼들과 건설자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힘차게 투쟁하여 1년 남짓 사이에 공장을 우리 당의 주체적인 건축미학사상에 맞는 최첨단 공장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김일성총합대학, 김책공업총합대학, 평

양건축종합대학, 평양기계대학의 과학자, 기술자들, 령단위 일꾼들과 로동계급은 자동로봇제, 자동기질주기기, 자동공공집중기, 열공기를 비롯한 많은 설비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을 성과적으로 보장하여 우리의 주체적인 령단위와 우리의 기술에 의거한 현대화를 실현하는데 대한 당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버섯기질성형공정, 버섯무균공정, 버섯재배공정 등 원료 투입으로부터 출하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통합생산체계는 물론 기업관리의 경영정보 체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공장의 면모는 버섯재배공정의 새 역사를 펼쳐가는 우리 당의 령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현명했는가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공정에서는 수습대의 현장 감시카메라와 수많은 수습요수들에 의해 공정별에 따르는 측정값, 설정값, 설비가동상태 등 각종 생산정보들이 컴퓨터로 감시조종되고있다. 원료분쇄와 혼합, 기질준비 등으로부터 증배양, 멸균, 접종, 배양 등 모든 생산공정들이 통합생산체계에 의해 조종됨으로써 버섯생산의 공업화, 집약화실현에서 비약이 일어

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내열성수지법에 의한 버섯재배방법을 도입하여 성공시킨으로써 실리를 확고히 보장하고 종균, 접종, 재배에 이르는 생산공정의 무균화, 무진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며 버섯을 공업적방법으로 대량 생산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 놓았다.

공장의 기질주입공정과 증배양공정의 자동화실현은 우리 나라의 버섯재배공업화, 집약화를 하루빨리 높은 수준에서 실현할수 있는 튼튼한 도약대를 마련한 또 하나의 혁신으로 된다. 생산현장들에는 공기조화장치, 제진장치, 소독장치들이 설치되어있어 무균화, 무진화가 철저히 보장되고 제품의 위생안전성이 확고히 담보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커다란 기쁨과 만족을 드리고 몸값을 행을 받아안은 그날의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할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지금 버섯을 더 많이 생산하여 수도시민들에게 보배주기 위해 헌신의 낮과 밤을 이어가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주장과 업을 어느 한가지도 놓치지

않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이들은 편반부문 일꾼들, 과학자들과 지혜와 열정을 합쳐가고있다. 흰공복버섯, 느라리버섯, 털검정버섯, 비늘머슴버섯 등 좋은 품종들을 기본생산지로 정한 이들은 선진적인 재배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해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려붙었다. 이미 지난해 이룩한 시험생산성과에 토대하여 버섯을 균일하게 형성시키고 내열성수지법에 의한 버섯재배방법을 더 높은 수준에서 완성하기 위해 기술습을 강화하며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이고있다.

공정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불타는 충정과 애국의 열정에 떠받들려 지금 기본생산선들의 10여개 호통들에서는 버섯이 왕성하게 자라고있다. 당창건 일흔둘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의 넘과 기상으로 삼파 투쟁에서 기어오르는 보기를 창조함으로써 우리 당에 1년 365일 기쁨의 보고, 충정의 보고를 드리는 승리가 될 불타는 열의안고 펼쳐나선 이만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힘찬 투쟁으로 하여 머지않아 시민들의 식탁에는 버섯향기가 풍기게 될것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도당위원회와 특혜운성의 지도방조로써 흥남항만건설사업소와 흥남항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방파제건설 보수공사에 한걸음이 펼쳐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방파제를 그 어떤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개건보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특혜운성 일꾼들과 흥남항만건설사업소, 흥남항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드세한 공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특혜운성 책임일꾼들과 항만수상승무원과 일꾼들은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를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갔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방파제개건보수공사 빠른 속도로 진척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온 나라 이르는 곳마다에서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지금 흥남항에서 방파제개건보수공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마련한 자랑찬 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이 들어야 합니다.》**

도당위원회와 특혜운성의 지도방조로써 흥남항만건설사업소와 흥남항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방대한 방파제건설 보수공사에 한걸음이 펼쳐나 성과를 계속 확대해나가고있다. 방파제를 그 어떤 해일에도 견딜수 있게 개건보수할 높은 목표를 내세운 특혜운성 일꾼들과 흥남항만건설사업소, 흥남항 일꾼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드세한 공격전을 벌여나가고있다. 특혜운성 책임일꾼들과 항만수상승무원과 일꾼들은 현지에 나가 걸린 문제를 수시로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갔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한개의 무게만 해도 근 100이 되는 천수백개의 네뿔부재와 수백개의 판부재 미려 생산해내고 과학적인 설계와 탄성에 기초하여 부재조립에서 종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일차 리를 폭폭 대고있다. 방파제개건보수공사를 앞당겨 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이 들어야 한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한개의 무게만 해도 근 100이 되는 천수백개의 네뿔부재와 수백개의 판부재 미려 생산해내고 과학적인 설계와 탄성에 기초하여 부재조립에서 종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일차 리를 폭폭 대고있다. 방파제개건보수공사를 앞당겨 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이 들어야 한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한개의 무게만 해도 근 100이 되는 천수백개의 네뿔부재와 수백개의 판부재 미려 생산해내고 과학적인 설계와 탄성에 기초하여 부재조립에서 종전의 방법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대담하게 도입하여 일차 리를 폭폭 대고있다. 방파제개건보수공사를 앞당겨 갈고 10월의 대추전장에 땀이 들어야 한다는것을 항상 명심하고 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드세게 밀어붙여나갈수 있다. 한층더 높은 단계로 김정일애국주의교양, 신념교양, 반제계급교양, 도덕교양을 강화하여 모든



따사로운 사랑의 품에서 1월의 야영기는 세차게 펼쳐진다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첫겨울철야영을 진행하는 학생소년들의 행복넘친 모습을 보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과 공화국에 있어서 사랑하는 소년 단원들은 억만금의 금은보화에 비할수 없는 귀중한 보배이며 희망과 미래의 전부입니다.》

뜻깊은 올해에도 정초부터 햇빛밝은 이 강산에 열화같은 후대사랑의 서사가 펼쳐지고있다. 지난해 10월 완공된 평양유아원, 애육원을 돌아보면서 설날에 오겠다고 약속하였는데 아이들과 한 약속을 꼭 지키고싶어 신년사를 마치는

길로 찾아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새해를 맞이하는 원아들을 축복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 그런데 또 얼마전에는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첫겨울철야영소식이 전해져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어머니당에 대한 감사의 정으로 뜨겁게 젖어있게 하고있다.

새해의 첫달에 이렇게 펼쳐진 가슴뜨거운 화폭을, 오직 우리 당만이 안겨줄수 있고 우리 사회주의제도에서만 누릴수 있는 학생소년들의 희열과 광만, 행복과 격정을 아래에 전한다.

사랑의 직통렬차는 기적소리를 높이 울리며 야영소를 향해 떠났다. 찬란부도도 줄수 없는 영생들은 한층 잊지 못할것이다.

세상에 부림없어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의 축하를 받으며 야영 1각으로 들어선 학생소년들의 두눈은 대변에 휘둥그레졌다. 야영각의 천정과 바다에 장식한 달, 별을 비롯한 각종 무늬들, 현대적인 승강기들, 연분홍색, 파란색채들과 액정텔레비전수상기, 평동기 그리고 현대적인 가구들이 그분하게 갖추어진 호실들... 야영생들은 너무 좋아 어쩔줄 몰라하였다. 얼마후 1층에 있는 식사실로 내려간 그들은 식사실로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닭알달걀, 오리구이, 돼지고기, 토마토, 파, 파프리카, 유유 등 맛있는 음식이들이 10일간의 야영기간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구분되어있었다.

우리 학생소년들을 따뜻이 품어안아주는 어머니당에 드리는 노래마당 울리던 그 기적소리를 야영생들은 한층 잊지 못할것이다.

게 직접 보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니 모르겠습니다. 처음 보지는 몰고있었지만 얼마나 많은 정감말 회한합니다.》

이른 새벽에 송도원 3학년 2반에서 공부하는 리진희학생이 하는 말이다.

겨울철, 조류사, 립체물동영화판, 전자오락실 등에서도 야영생들의 행복의 웃음소리는 그칠줄 모른다. 동심에 맞게 훌륭히 꾸려진 실내놀이장에서는 동화명승 송도원의 푸른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는 아이들의 아쉬움을 잊는듯 가사주요 실내체육관에서는 흥구경기, 배구경기, 버라이어티, 가만놀이 등으로 야영생들이 시간가는줄 모른다.

또한 야영생들이 요리실습실에서 《송도원》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모자와 함께 앞치마를 두르고 계손으로 각종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은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흥그롭게 해준다.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야영생활은 이렇게 날마다 다채롭게, 특색있게 펼쳐지고있다. 그 하얀행복의 이야기들이 작은 지면에 담담을 수 없는것이 정말 아쉽다.

《세상에 부림없어라!》 우리의 눈앞에 이 구주요의 미심장하게 언겨주었다. 송고한 후대사랑을 지니신 해님의 따사로운 손길아래 학생소년들의 즐거운 야영은 계속되고있다.

며 생일상을 받아안은 장풍군 대덕산고급중학교 초급반의 고혜련, 정영미학생들을 비롯한 야영생들의 눈물속에서 우리는 이에 대한 대답을 심장으로 들었다.

은정구역 호성고급중학교의 한 분단위원장의 일기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있었다.

《...정말 하늘나라, 별세상에 온 것만 같다. 야영소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은 곳이다. 그 어디에도 없었다. 찬란부도도 보살펴주시는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친아버지이다.》

해님을 따르는 학생소년들의 불타는 마음이 어려서인간 야영기는 세차게 펼쳐지고있다.



뜨거운 정과 바래움속

새해를 맞고나서 인솔 아이들 이 당의 은성속에 겨울철야영을 위해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로 떠난다는 소식이 살피에 날개라도 돌린듯 온 나라에 퍼져갔다. 학습과 조직생활에서 모범인 은정구역 호성고급중학교 초급반 3학년 3반 학생들이 야영소로 떠난다는 소식은 부모들은 물론 온 구역을 설레이게 하였다. 아이들은 아예 으스스해하고 담담 교원인 리상호동무는 가는 곳마다에서 축하의 인사를 받았다.

야영과 관련한 학부형총회가 진행된 날 부모들의 얼굴엔

어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온갖 성의를 다한 구역과 농장, 학교일군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락평구역 두루섬고급중학교 초급반 3학년 1반 담임교원의 이야기도 감동적이고 야영을 떠나는 농장원들의 자녀들을 보란듯이 내세우자고 하면서 수심법의 좋은 솜씨들을 마비해준 신천군 새길현농장 일군들의 진정된 가슴뜨거웠다.

이렇게 수백명의 야영생들모두가 당의 송고한 후대사랑을 정히 받들어가는 수많은 일군들의 뜨거운 정과 바래움속에 즐거운 야영길에 나섰었다. 나라의 왕인 아이들을 태운

가에 따라 눈에 띄게 높아진다. 우리의 만만 영웅사미제 1중학교 초급반 3학년 1반 담임교원 변인실동무는 이렇게 말하였다. 《열차를 타고를 때부터 마시령에 지금 가면 눈이 있는가고 묻던 학생들이었는데 정작 스키를 타게 되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저녁에는 글세 집에 가지 않고 계속 야영소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스케트장에서는 배워지지 않아도 멋진 스케트를 신고 야영생들이 별의별 재주를 다 부린다. 온 나라에 휘몰아친 로라스케트바람의 덕이라고 교원들은 말한다. 마시령의 천연산악을 다스려 세계적인 스키장을 일떠세워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이 문명을 한껏 향유하게 해준 어머니당의 사랑, 그 사랑이 피은 야영생들의 행복의 웃음속에서 사회주의향기가 한껏 풍겨오고있다.

마시령스키장만이 아니라 야영소에서도 즐거운 야영생활이 한창이다. 수족관의 중앙홀에 있는 벌초나선 야영생들은 달나라여행이라도 나선듯이 어찌가 으스스하여 사진을 찍는다. 당장이라도 스키장을 날아지칠듯 저저마다 초급주요로 나섰건만 욕망만 가지고서 마시령스키장을 점령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다.

스키교원들이 웃음을 지으며 준비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방향바꾸기, 정지, 돌기 등 스키타기의 기초동작들을 친절히 알려주어 야영생들의 기쁨은 시간이

해님을 따르는 마음

사람의 절정에서 온갖 기쁨과 행복을 다 누리는 야영생들 누구에게나 소중한 마음이 깃들고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 야영소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님들의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는 학생소년들의 가슴속에 파인 그 무엇이 간직되어있었는지 우리는 구려어 묻지 않았다.

위대한 대원님들의 사랑까지 합쳐 세상만부를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다 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첫겨울철야영의 행복넘친 시간은 계속 흐르고있다. 이제 얼마나 많은 학생소년들이 이곳을 찾아 세상에 없는 온갖 복을 누리게 될것인가. 어머니당의 품속에서 나날이 더 행복해지는 사랑하는 후대들의 모습에서 우리 인민은 죽어도 버리지 못할 사회주의제도의 귀증함을 더욱 배우로 절감하고있으며 끝없이 부강하고 번영할 김정은시대의 휘황한 미래를 가슴부터이 그려보고있다.

글 쓴사자 김명환 사민사자 전성남



자립경제의 토대와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총공격전에 펼쳐나선 명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의 기세가 이만저만 아니다.

탄장을 들뜨는다는 중증 발과소리, 석탄을 가득 싣고 줄지어나오는 탄차들, 혁신적 성과를 전하는 속보판들... 강과 중대, 소대들의 석탄생산 및 품질실적이 고대마다 계속 뛰어들고있다.

다음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의 토대와 온갖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인민생활향상과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이룩하여야 한다.》

3명 체원 3중대의 체원막장은 첫날전투에서부터 불도 가나마당 끊어낸것이다. 울리길이가 다른 막장들에 비해 수십m나 더 불리한 작업조

명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3명의 신원중대원들은 헌신적 투쟁으로 고대마다 탄벽을 련속 허물어내었다. 그들이 있을 때 1명 체원 3중대 탄부들은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확보할수있도록 노력했다. 나라이의 긴장한 전력문제를 푸는 데 이바지할 예극의 일념으로 수천척지하막장에 순결한 망심을 바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탄차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릴수 없다는것이 중대탄부들의 불같은 마음이었다. 공훈탄부인 중대장 신현송동무의 헌신한 목소리가 막장벽을 울렸다. 《갑박만 있을수 없소. 오직 전진만이 있을뿐이요. 그래서 총공격전이지.》

중대탄부들은 그의 뒤를 따라 고대를 마친 후에도 2시간간 탄차를 막장에 끌어들이고 막장을 보수하는 일을 스스로 맡아하고있다. 이들의 가족들도 막장지원에 열쳐나섰다.

높뛰는 증산의 숨결

업무를 높이는 한편 시시각각 차오르는 석수를 맞받아 갈고리도 치밀한 결사전을 벌이며 련일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2명 체원 1중대 탄부들도 일일계획을 1.4배로 넘쳐 수행하며 기세충개 전진하고 있다. 중대장 리용성동무를 비롯한 중대의 탄부들은 올해의 총공격전에서 자기들이 맡고 있는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집단적혁신의 불길을 높이 지펴올리고있다.

높은 도혁신, 전진 또 전진. 이것이 지금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받아안고 산악같이 펼쳐나선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의 드높은 열의이다.

석탄생산실적이 비약적으로

뛰어 오르는 데 맞게 골막장들에서도 혁신적업무를 이룩되고있다. 1명 석공질굴진소대와 2명 박수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이 석탄생산의 돌파구를 열어놓는 전초병이려는 드높은 자각을 안고 앞선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탄광의 앞장에서 기세충개 전진하고 있다.

총공격전의 기상이 세차게 나래치는 속에 탄광의 일군들은 석탄생산에 편견이 없이 늘기 위한 통이 큰 작전을 펼치고 강막장에 깊이 들어가 생산조직과 지휘를 전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지금 명학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뜻깊은 10월의 대동진장에서 드물 자랑찬 선물을 마련해가는 심정으로 막장마다에서 치밀한 생산돌격전을 벌이고있다.

특파기자 리혁철

1월 계획을 넘쳐 수행

라선 세멘트공장에서

라선세멘트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1월 세멘트생산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다. 이들은 전기가 긴장한 조건에 맞게 전기절약형장비들을 받아들여 적은 전기로 월세멘트생산계획을 수행하면서 1만 여kg의 모놀로크를 생산하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공장당조직에서는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생산에서 혁신하여 생산을 늘리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세차게 내려치는 혁신의 불바람

해산 청년광산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해산청년광산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첫 전투에서부터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5배의 높은 실적을 기록하며 기세충개 전진하고있다. 당조직에서는 뜻깊은 올해 전투계획을 높이 세우고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받아들여 전투장마다에서 창조와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나래치게 하고있다.

50명 체원인소대, 람사정 제2소대, 제3소대들이

련일 생산적양양을 일으키며 기세충개 전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훈을

명학탄광 일군들과 탄부들

에 맞게 공장당조직에서는 화산선전, 화산선동의 포성을 높이 울리면서 전투부위를 기르고 조직하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2적목장에서 세차게 타르고있다. 직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겨울철의 불리한 조건에서도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짜고들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며 매일 많은 탄을 생산하고있다.

4적목장에서의 일군들과 로동자들도 질 좋은 모시탄을 더 많이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기여할 열의에 넘쳐 증산

문헌강철공정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철강재생산에서 련일 새로운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공장의 철강재생산은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늘어나고 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일군들과 로동자들의 양양 열

해산청년광산에서

를 높이는것과 함께 압축기들을 더 많이 설치하여 생산능력을 부쩍 늘려나갔다. 광장에서 채굴방향을 바로 정하고 주에 1차적 착암수, 운반공, 채광공들을 비롯한 광부들과 기술자들에 대한 기술학습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대조적기술 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또한 설비들에 대한 수리점검을 책임적으로 하여 광물생산을 늘이도록 하고있다.

선광직장에서는 기술관리사업을 짜고들어 선광실수율을

높이하고있다.

부기장장 김영국동무를 비롯한 참모들의 일군들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책임직으로 하여 제중지도도 책임직으로 하여 재고와 재물, 운반, 선광을 비롯한 생산의 전반공정이 치차처럼 맞물리게 하는 것과 함께 로동자, 기술자들의 과학기술수준을 높이는 사업에 힘을 넣어 모두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생산을 활력있게 밀고나가기로 결심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전철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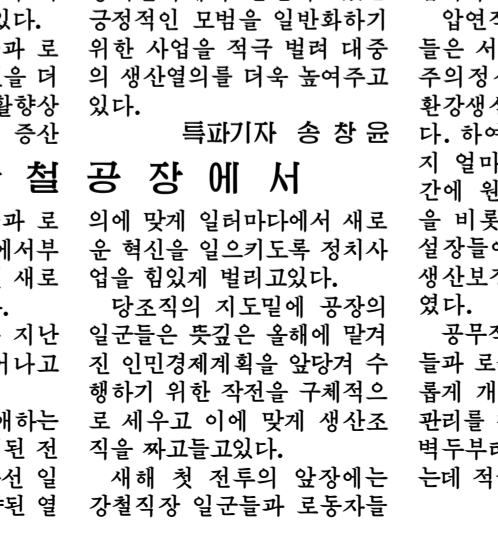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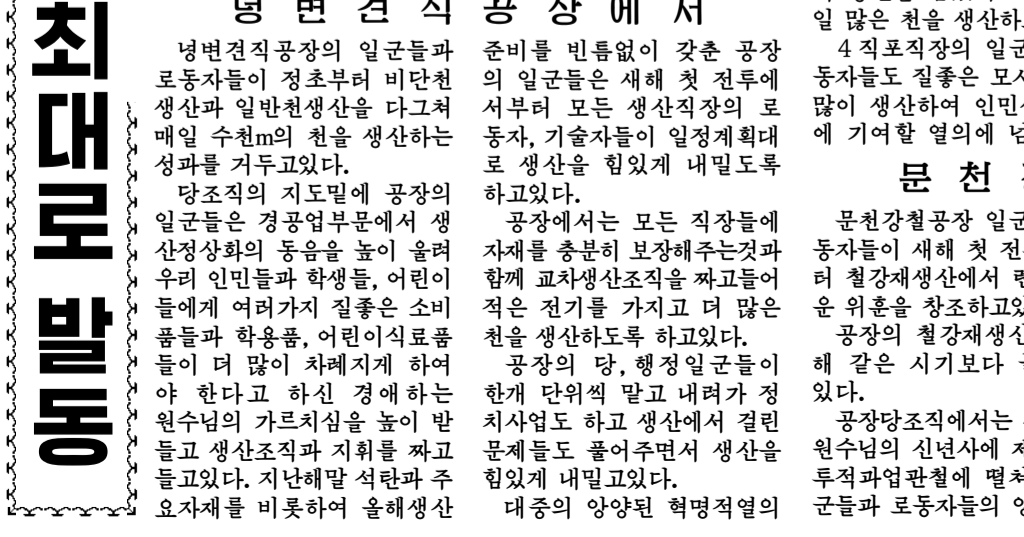
공장에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춘 공장 일군들은 새해 첫 전투에서부터 모든 생산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이 일일계획대로 생산을 힘있게 내밀도록 하고있다.

공장에서는 모든 직장들에 자체를 충분히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교차생산조직을 짜고들어 작은 전기를 가지고 더 많은 탄을 생산하도록 하고있다.

공장의 당, 행정일군들이 한계 단위씩 맡고 내려가 정치사업도 하고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도 풀어주면서 생산을 힘있게 내밀고있다.

대중의 양양한 혁명적열의



랭전을 몰아오는 3자합의서

하나의 문서가 국제정세와 관계주도에 어떤 부정적효과를 미치는가 하는 것은 결코 역사문서고에서만 찾게 되는 대답이 아니다. 최근 효력을 발생된 미, 일, 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가 그 대표적실례라고 볼 수 있다. 이 합의서는 우리의 《핵위협》, 《미사일위협》에 대처하여 3자사이의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이다.

미, 일, 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에 주변나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있다. 중국군사부문에 관한 화한언론은 미국이 동맹체제를 리용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며 중국주변에 하나의 담벽을 쌓으려고 시도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정경태학의 한 연구원은 맹전주도는 이미전에 붕괴되었지만 맹전의 유령이 아직까지 동북아시아에서 배회하고있다. 미일남조선3각동맹강화는 조선반도정세완화에 어떤 좋은 점도 없다. 이것은 중국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게 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로씨야의 출판보도계와 전문가들은 미국이 아시아에서 나토와 유사한 기구를 조직하여 주변대국들을 제압할것을 노리고있다. 3자합의서체결은 지역에서 로증대 미일남조선사이의 마찰을 불러올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사실상 로씨야나 중국이 미, 일, 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것은 당연하다.

우리의 자주적외교정책을 결코 고안된 3자합의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미국주도의 미사일방위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첫 징표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란 우리 공화국의 국가정보기관의 미치지 않는다. 미국이 추진하는 미사일방위체제의 핵으로서 남조선에 배치될 《싸드》는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같이 높은 고도로 날아가는 미사일로 여겨지는 체계이다. 《싸드》가 수직적으로 동반하게 되어있는 《X-벤드》메이디의 탐지거리는 1 0 0 0 km 이상에

달한다. 이것은 우리 공화국북반부는 물론 중국과 로씨야의 군사적목적임이 미국의 항시적인 감시속에 있게 된다. 이것을 탈해준다. 언젠가 되는 걸로는 일, 남조선 3자의 결탁으로 형성되고있는 미사일방위체제가 조선반도 주변 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며 나아가서 일의 시각에 상대방위의 전략대상을 무력화시킬것을 노린 선제공격체제로서 지역강국의 주되는 요인이 되는것을 말해준다.

현재 미국이 그 누구의 《미사일위협》을 읊음하는것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공격형미사일을 제일 많이 보유하고있는 것도, 세계도처에 그것을 전개하고 신도 개발하고 있는 것도 미국이다. 미국때문에 세계가 미사일위협속에 살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사일위협의 장본인도 다름아닌 미국이다.

미사일위협을 놓고보자. 미국은 우리의 미사일위를 막기 위해 유럽과 중동은 물론 알라스카로부터 일본, 남조선, 필리핀, 오스트랄리아에까지 미사일방위망을 늘여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과연 이것이 초보적인 룰리에 맞는것인가.

미사일방위체제의 형태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그것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있는 미국의 잠재적적수들을 동쪽과 서쪽에서 압축하는 형태로 구축되고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가 방어용이라면 전개지역이 나토나 미국을 멀리 벗어난 라부라 제1회로 미사일방위체제의 9 0 %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전개되어 지역의 대국들과 미국의 말에 고분고분하지 않는 나라들을 포위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리의 자주적인 미사일을 놓고 아부제기를 치는것은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황당무계한 꾀인이 아닐수 없다.

미국이 터무니없이 우리의 《위협》을 요란하게 떠드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무력증강

과 미사일방위체제구축행동을 합리화함으로써 어떻게 하나 패권적지위를 확보하는데 있다.

2 1 세기에 들어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치, 경제, 군사전략적지위가 날로 높아감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대외정책의 방향을 이 지역으로 돌리고있다. 미국은 누구보다도 부산을 피우고있다. 강력한 경제군사적합을 가진 대국들이 집중되어있는 이곳에서 자치화한 밀리를 수 있다는 위구심 더우기는 허물어지는 미국의 패권적지위가 미집권자들의 불안감에 키질되고있다.

이미 미국의 지정학전문가이며 패권주의설교자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는 자국의 패권이 팔장났다고 주장하였다. 미국대통령인 오바마 자신도 세계가 다국화되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반면에 지역을 좌우지하는데서 미국에 도전할수 있는 잠재적적수라고 보고있는 로씨야와 중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있으며 서로의 판계를 긴밀히 하고있다. 그 판계는 경제는 물론 군사, 안보분야에로 확대되고있다.

미국은 이러한 잠재적적수들을 군사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제도 그중의 하나이다. 강력한 미사일방위체제를 구축한 그들의 피해를 극복할 이면서 또 상대측에 대한 타격효과를 최대도 높이고 있다고 떠들고있다. 미국이 우리의 《미사일위협》을 거론하며 미, 일, 남조선사이의 정보공유합의서를 무라부라 제1회로 미사일방위체제에 광범화하는것은 이 때문이다. 중국이 가서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나토형군사블럭을 조직하여 지역의 안정과 전략적균형을 파괴하고 지역대국들을 전제하라고 떠들고있다.

몇년전 오바마행정부가 내놓은 아시아태평양중심전략적자가 본질에서 이 지역에 힘을 집중하여 경쟁자들을 포위제하고 그들의 군사적우위를 계속 유지해보겠다는것이였다. 미국은 대서

양에 집중되어있던 미해군의 주력을 이미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이동시켰으며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고있다. 이와 함께 맹전지위 유럽에서 나토에 의지하여 이전 소련과 동유럽나라들을 억제, 붕괴시킨 《경협》에 토대하여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도 저들의 잠재적적수들을 억제할수 있는 보다 큰 규모의 집단적적수구구를 내오려 하고있다. 여기서 미국은 미일군사동맹과 미국남조선군사동맹을 합쳐 3 각군사동맹을 내오는것이 급선무라고 보고있다.

실감한 제정위기로 군사비까지 줄이고있는 형편에서 미국은 그로 인한 군사적공백을 남조선과 일본의 힘을 빌어 메꾸려 하고있다. 미국이 역사문제, 독도영유권문제도 감정이 심해지는 주구들과의 군사협조와 동맹관계강화의 당위성에 대해 떠들어대고있는것은 아시아판나토창설의욕이라고 때려놓고 생각할 수 없다.

지금에 와서 미, 일, 남조선사이에서 체결된 정보공유합의서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긴장각화의 씨를 뿌리고 조선반도에도 형성된 맹전주도를 지적으로 확대하게 될것이라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서방보도계까지도 미, 일, 남조선은 우리 나라와 관련된 군사정보만 공유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발단은 3자의 군사동맹관계로 부각시켰을 뿐 아니라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중로와의 대결을 부채질하고있다고 평하고 있다.

시대각각이 둔하고 과신한 자신을 망친다는 말이 있다. 약의 원후, 부정의 의 양초로서 민심의 지탄을 받으며 쇠퇴몰락하고있는 미국은 심사숙고해야 한다.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과 인민들은 대결과 전쟁을 추구하고는 침략적인 미, 일, 남조선사이의 3 각군사동맹구축행동을 철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것이다.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

여러 나라 단체들과 지역구 성명 발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영국군정군정치연구회,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시기에 뜻깊은 신년사를 발표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축하하시고 새해 2015년에 달성하여야 할 과업들과 함께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또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었다. 그이의 신년사는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최근인 미일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을 그만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광범히 연구보급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제사상과

화답해나셔야 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하여 영국군정군정치연구회,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선협회가 3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을 압살하기 위해 더욱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는 시기에 뜻깊은 신년사를 발표하시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지난해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와 성과를 축하하시고 새해 2015년에 달성하여야 할 과업들과 함께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었다.

또한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해소할수 있는 매우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었다. 그이의 신년사는 조선인민의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강령적지침이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한다.

미국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시정책을 철회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주되는 최근인 미일남조선합동군사연습들을 그만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김정은동지의 신년사를 광범히 연구보급할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신년사를 지지하여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지역 주제사상과

미제는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정책을 포기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성명을 지지하여 영국군정군정치연구회, 영국주제사상연구소, 영국조선선선협회가 9일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내성으로 시종일관한 림장을 긍정적으로 호응할 대신 미국의 오바마행정부는 조선에 대한 추

영국 단체들 공동성명 발표

가계제를 공포하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미국의 제제는 남조선 《증거》들이 그 초안으로 하여 극히 부당하다.

《조니 피쳐스》영외계작보급사에 대한 해킹사건은 이 회사에 환멸을 느낀 사람들 아니면

적대행위를 무조건 중지하는 용단을 내리며 조선의 근대와 인민이 미중우의 조강제대용전에 진입한 상태라는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저들의 남아빠진 시대착오적이며 반동적인 대조선정책을 포기하여야 할것을 신시점에 서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로씨야인민군 총참모장 알렉세이 고르데예프가 최근 한 텔레비전방송에서 회견에서 전략핵무력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3개의 미사일연대가 《야르스》미사일종합체로 재무장되어 전투직일에 진입하였으며 4대의 전략항공대 비행기 《Ty-160》과 《Ty-95MC》가 현대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칼리닌그라드와 이르쿠츠크에서 성능이 높은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군수에 들어갔으며 올해에 바르나폴과 니제이시에서 또 다른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직일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서남부와 동부 등 모든 전략적방향들을 감시선에 두게 된다고 말하였다.

국방성은 올해에도 전략핵무력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

국방력 강화와 사회적 진보를 위하여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로씨야인민군 총참모장 알렉세이 고르데예프가 최근 한 텔레비전방송에서 회견에서 전략핵무력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3개의 미사일연대가 《야르스》미사일종합체로 재무장되어 전투직일에 진입하였으며 4대의 전략항공대 비행기 《Ty-160》과 《Ty-95MC》가 현대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칼리닌그라드와 이르쿠츠크에서 성능이 높은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군수에 들어갔으며 올해에 바르나폴과 니제이시에서 또 다른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직일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서남부와 동부 등 모든 전략적방향들을 감시선에 두게 된다고 말하였다.

국방성은 올해에도 전략핵무력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로씨야인민군 총참모장 알렉세이 고르데예프가 최근 한 텔레비전방송에서 회견에서 전략핵무력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3개의 미사일연대가 《야르스》미사일종합체로 재무장되어 전투직일에 진입하였으며 4대의 전략항공대 비행기 《Ty-160》과 《Ty-95MC》가 현대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칼리닌그라드와 이르쿠츠크에서 성능이 높은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군수에 들어갔으며 올해에 바르나폴과 니제이시에서 또 다른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직일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서남부와 동부 등 모든 전략적방향들을 감시선에 두게 된다고 말하였다.

국방성은 올해에도 전략핵무력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

로씨야에서

로씨야에서 로씨야인민군 총참모장 알렉세이 고르데예프가 최근 한 텔레비전방송에서 회견에서 전략핵무력발전에서 이룩된 성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그는 지난해 3개의 미사일연대가 《야르스》미사일종합체로 재무장되어 전투직일에 진입하였으며 4대의 전략항공대 비행기 《Ty-160》과 《Ty-95MC》가 현대화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칼리닌그라드와 이르쿠츠크에서 성능이 높은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군수에 들어갔으며 올해에 바르나폴과 니제이시에서 또 다른 2개의 전파탐지소가 전투직일에 진입하게 됨으로써 서남부와 동부 등 모든 전략적방향들을 감시선에 두게 된다고 말하였다.

국방성은 올해에도 전략핵무력의 발전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

도덕적 저열성의 극치, 회고할수 없는 반인륜적악행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일본에 대한 세계 언론의 혹평이 그칠새 없다.

이러 미국,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언론들까지 일본에 대한 비난의 도수를 높이고있다.

프랑스신문 《라 베라세용》에 지난해 말 일본에서 진행된 국회의원선거결과를 평하는 한 대학교수의 논평이 실렸다. 논평은 선거에서 보수우익적인 자민당이 중의원의 석수 총 4 7 5 석중 3 2 6 석을 차지하였다고 하면서 이것은 일본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였다는 증거가 된다, 앞으로 일본의 야배정부가 우익보수층을 만족시킬수 있는 《민족주의》적색채가 짙은 정책들을 집행해 나갈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어느 한 나라의 출판물은 《일본에서 민족주의가 다시 부활하고있다.》는 내용의 기사로 일본을 심판하 비판하였다. 기사는 일본에서 《민족주의》는 제2차 세계대전기 일본인의 정신적 및 정치적기초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일 본식 가치관으로 되워 두고 하면서 페망수십년간 상징적으로 존재하던 《민족주의》는 현재의 집권층을 계기로 다시 일본정치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고 평하였다. 또한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기 아시아나라들을 서방열강들의 지배로부터 《해방》하였



인디아의 역사유적